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548 |
|----------|-----|

2025. 6. 17.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6. 16. 강을석 의원 등 8명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2025. 6. 17.)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강을석 의원)

가. 주문

- 강남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과천선에 역삼 1·2동, 도곡 1동 일대 주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을 56만 강남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함

나. 제안이유

-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 지역은 주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구간임.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은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음.
-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인접한 역삼1·2동, 도곡동 일대는 현재 모

아타운 개발, 창업가거리 조성,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및 경기도 과천·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노선이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2025. 2, 국토교통부)에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 대중교통 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 결의안을 제안함.

다.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강남구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복선전철 노선을 포함하였음.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9월 조사에 착수하여 2024년 11월 조사를 완료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위례~과천 광역철도 복선전철은 위례에서 과천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축 노선안을 바탕으로, 정부과천청사부터 압구정까지의 남북축 노선안이 추가되었음. (예산안에 따른 추정 사업비 3조 1,876억원, 규모 28.25km)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입지 대안 비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일원을 통과하는 해당 노선안의 타당성 조사 중 사업계획 보완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차후에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 2025년 2월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한 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음.¹⁾ 이 내용에 따르면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획노선 선형 일부를 조정하였고, 강남구 구간에는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면서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57호,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 위 대안에 따르면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연장 포함 총 구간길이는 28.25km, 정거장 수는 16개소이며, 계획상 추정되는 설치 예정 역사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인근 환승시설과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하철역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임. 다만, 계획상 위례~과천 광역철도 B라인의 경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B라인 인근 지하철역]

(2025년 6월 현재)

| 소재지 | 역명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양재시민의 숲(신분당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역삼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학동역(7호선), 언주역(9호선) |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역사 신규 설치 요청지점]

- 이 결의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된 주민 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는 지상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교통정체로 인한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이 상시 발생함.
 - △창업가 거리 조성, 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 인근 지역 여건 변화가 존재하고, △주택단지(도곡 삼익·우성·한신 등) 재건축에 따라 유입될 인구 수 증가 가능성, △기존 설치된 병원 및 인근 상업시설 이용도 증가 우려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
 - 역사 신규 설치 요청지점으로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모두 1km 이상으로 확인되고,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인프라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임.
-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규 설치를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임.
 - 도곡동·역삼동 주민들은 이전부터 역사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강남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해왔고, 2025년 6월엔 주철현 등 8,972명이 정식으로 청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자 등 구의회의원들은 선제적으로 △지역 교통 수요 반영, △교통복지 및 도시균형발전 구현,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함.
- 현재 계획상 역사 설치 지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원 내용을 반영하여 위례~과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설까지 완료된다면, 강남구 지역 내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의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 결의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당 지역 역사 신설 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임.
- 이 결의안을 통하여 발의자들은 △강남구청, △서울시청이 ‘위례과천선 기본계획상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 반영’에 대해 국토교통부

와 국가철도공단에게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함. 그 이행 여부 및 주민의
견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역사 명칭의 경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노선 특징, 지역
위치,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 관계 법령 및 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7호]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자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제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대통령 공고]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고시]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국토교통부 고시]
-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국토교통부 고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붙임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48 |
|----------|-----|

발의연월일: 2025. 6. 16.

발 의 자: 강을석·이도희·김진경·
황영각·김현정·전인수·
김영권·안지연 의원
(이상 8인)

1. 주문

강남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과천선에 역삼 1·2동, 도곡 1동 일대 주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을 56만 강남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 지역은 주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극심한 구간임.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은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음.
-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인접한 역삼1·2동, 도곡동 일대는 현재 모아타운 개발, 창업가거리 조성,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및 경기도 과천·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 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노선이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2025. 2, 국토교통부)에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접근성 보장, 대중교통 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 결의안을 제안함.

3.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강남구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남부권의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기반 사업이다.

강남구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인근 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지역 내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교통약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강남구 지역 내 교통인프라 격차와 불균형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공공교통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역삼동과 도곡동 일대는 모아주택 개발, 창업가 거리 조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 중으로, 향후 인구 유입 및 교통 수요의 급증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정체 구간으로, 이미 교통 혼잡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지하철 역사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확대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강남구 내 균형 발전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정차역을 신설하는 것은 단지 지역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닌, 교통복지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참여의 행정철학을 구현하는 일환으로써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역사 신설을 위례과천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

강남구의회는 역삼·도곡동 주민 주철현, 조미숙, 김재영 외 8,971명을 비롯한 강남구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삼 1·2동, 도곡 1동 및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의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 계획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역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례과천선 노선에 해당 역사를 신설하여 구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2025년 6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